

연중 제 4 주일
(구라주일)

기도서 P. 338 B해

제1독서(신 명 18, 15-20)

제2독서(고린전 7, 32-35)

복 음(마 르 1, 21-28)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협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감 론



예 언

김 정 원 신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나와 같은 예언자를 동족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세워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신명 18:15)

구약 전체가 예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약속이며, 예언적인 사건을 말한 것이다. 구약은 장래의 일을 선포하며 예언하며 준비한 예언서인데, 그 성취는 신약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된다. 예언(나비)이란 하느님의 뜻이 무엇임을 그의 백성과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언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말할뿐 아니라,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메씨지」이다. 그러므로 예언은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예언은 일정한 장소와 시기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예언이란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말해진 예언이며, 따라서 예언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예언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예언의 목적은 하느님 자신이며, 장래에 관한 교훈이 아니다. 예언은 일정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한다. 예언은 심판과 구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며 용서하시라 오시는 하느님에 관하여 말한다. 예언은 택할만한 백성에게 계약과 곧 가까이 계신 하느님, 그의 백성을 만나보러 가시며 이 세상 일에 간여하시는 하느님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므로 예언은 하느님의 공복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하느님은 예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비」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해지는 내용을 말한다. (신명 18:19)

신약성서에서는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을 예언했습니다.」(사도 3:24)고 한 바와 같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증거하였다는 말과 같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그리스도인은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만민의 생활, 그리스도의 체험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다.

예언은 성령의 은사 중의 하나이다. (고린토 전서 11:4-5). 하느님의 구원의자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개인적인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인 입장이다. 성령을 통한 하느님의 은사활동은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예언은 중대하고 또 필요하다. 공동체에 있어서 고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생활의 증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도둑놈 말들어유”

「내 이웃에 연한 마음 하나를 가지고도 원 종일 쇠를 차르고 녹이고, 떡 주무르듯 하는 친구가 있거니. 착한 눈빛 하나로 쇠의 가슴을 찢러, 크나큰 어둠속의 어둠을 잡아 찢러, 두루 쓸모있게 만들어 내는 친구가 있거니. 이 절대의 불꽃의 고향이 어디에쯤 되는지를 내 그를 만나 비로소 배웠나니. 언제나 잃어버리고도 넘침, 사는 일 오장육부 뒤틀러도 눈 감음! 그를 따라 어느날 강가에 나갔더니, 그는 목에 찰만큼한 물에 들어가 붕어한 사람과 같이 한 뒷바라, 수만 트럭도 넘는 우리 그리움을 퍼 가지고 나오더라.」(曺서방/李盛夫)

글쓴이는 그의 시작(詩作) 노트에, 조그마한 철공소를 하는 「曺서방」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짧은 손마디와 팔뚝은 쇠에 입은 상처자국으로 성한 데가 없고, 거무더티한 얼굴엔 항상 구슬땀과 그름이 얼룩져 있다. 이렇게 일년 열두달,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그의 삶은 결코 풍족한 것이 되지 못한다. 「비싸게 받으면 도둑놈 말들어유. 짝끔씩 벌어야지유」 그는 이 각박한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욕심꾸러기가 되어갈 때, 그러니까 더욱 욕심을 내서는 안된다는 드문 사람의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은 구정이다. 또 구라주일 - 나병환자를 돕는 - 주일이기도 하다.

새해의 덕담(德談)으로는 「曺서방」 이야기를 하자. 강물에 뛰어 들어 우리의 그리움을 수만 트럭도 넘게 퍼내오는 「曺서방」이 되자고 다짐하자. 정치는 하는 사람들은 「曺서방」 같은 이가 잘사는 사회 진실을 위해 온 힘을 다하자.

구라주일만 되면, 온갖 수모를 다 참아가며 애쓰는 술집 아가씨들이 매일 하얀 쇠돈 하나씩을 모아 나환자들을 돕는다는 이야기가. 마음을 무겁게 함은 왜일인가?

숲 정 이 산책

도움시다!
사람합시다!
— 구라주일

나환자

□세계 인권 선언 30주년 기념 교황 메시지□



“각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 인정

곧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령(聖靈)은 <세계 인권 선언> 30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민족과 국가를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인간 기본권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하는 바입니다.

나는 좀더 분명하고 권위있는 그리고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간 기본권을 증진시키려는 국제연합의 공약을 힘있게 지지합니다.

□ 성령의 지지

지난 30년동안 <인권 선언>의 이상(理想)을 옹호할 사법기구를 설립하고 지원하는데 뚜렷한 진전과 현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2년전에는 경제·사회적 권리와 문화에 관한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공민권(公民權) 및 정치권에 대한 국제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하여 국제연합은 조직기구의 기본원칙들—즉 개개인의 인권증진과 그 기본 자유 옹호를 위한 사법상의 대책 설정—을 효율화 하는데 현저한 진전을 보여 주었습니다.

확실히 <세계 인권 선언> 내용이 전 세계에서 실천되기 위해 바람직한 것은 갈수록 더 많은 나라가 이 협약을 채택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권 선언>을 통하여 인종, 성별(性別), 언어나 종교의 구별없이 남녀의 인권 옹호를 법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민족들의 강한 의지는 곳곳에서 힘있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고귀한, 그러나 어려운 과제를 해결토록 시도하는데 있어서 성령이—여러 계층에서 주체성을 가지고—국제연합에 항상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인간 기본권과 자유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옹호하려는 국제연합의 노력을 항상 높이 평가하고 찬양하며 또 지지하였습니다.

□ 근본 원칙

지난 30년을 회고해 볼 때, 이 분야에서 실제로 만족할 만한 발전이 있기는 했으나, 아직도 우리의 현대세계에는 “불의(不義)와 억압”이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연합의 의미 심장한 선언이 있었음에도 여러 사회와 세계 곳곳에서 무더기 인권 유린 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사태는 우리를 슬프게 하며 불만스럽게 할뿐입니다.

오늘날 개인이나 공권력에 의하여 인간 기본권들—태어날 권리·생명권·책임있는 출산권(出產權)·노동권·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권·자유 쟁취권과 민족

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결정 참여권—이 침해당하는데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자 누구입니까?

그리고 개인들이나 집단들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는 지수인(因人)들이나 정적(政敵)들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심리적 고문과 같은 여러 형태의 집단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볼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이유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행위나, 물질적 이익을 빼앗아 감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조직을, 연극을 꾸며가며 파괴하려는 행위등을 생각한다면 위와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 해석자로서의 교황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자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개인적 사회적 권리의 기본바탕은 무엇입니까? 물어 볼 필요도 없이 그 근본 바탕은 인간 존엄성입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지상의 평화>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무릇 인간 사회가 질서 정연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인격자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인간은 그 자체로서 자가 본성에서 직접, 또 동시에 그 본성에서부터 유래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이고 불가침적이며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양도될 수 없는 것이다.”(# 9)

이것은 “각자의 고유한 존엄성과 모든 인간 가족들의 평등하고 양도될 수 없는 권리 인정이 바로 자유와 정의와 세계 평화의 기초”라고 한 <세계 인권 선언>의 전문(前文)과 내용이 흡사한 것입니다.

인권의 직접적인 근원은 인간 존엄성에 있습니다. 이 존엄성의 존중이야말로 인권옹호를 위하여 유력한 출발점입니다.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비록 실수는 할지라도 그 고유한 존엄성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며 결코 박탈당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지상의 평화 #158>

신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섭리를 강하게 인식케 하고, 모든 권리가 하느님 안에 근원을 둔 인간 존엄성에서 유래된다는 사실을 자각케 하는데 공헌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인권 선언이 규정한 제(諸) 권리에 대하여, 특히 생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와 같은 중심적인 것에 대하여 말해 보고자 합니다.

<3면에 계속>

빛과 소금이 되시요!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5943·8629)

이리 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삼

도 지정 보일러 시공업체

한국 보일러 설비사

호스배관, 첩관배관, 기름보일러,

시공 및 수리전문

연락처 : 이리 8629·군산 3032

(2면에서 계속)

날카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하여 총회(總會)에 환기시킴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카롭게 제기되는 문제란 다음아난 종교 자유 문제로서, 이것은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이며 인간 존엄성에 기인되어 다른 자유들과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인간의 뚜렷한 특성입니다. 참된 자유는 인간 존엄성이 흘러 나오는 근원입니다. 참된 자유는 인간안에 새겨진 특별한 하느님 모습의 표지 (사목헌장 #17)입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며 사명처럼 부여된 것입니다.

□만연된 인권 침해

오늘날 남자들에게나 여자들에게나 생명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생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 자유 원칙에 더욱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종교 자유에 대한 선언>에서 밝혔듯이 "종교적 예배의 자유가 헌법으로써 공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종교신봉을 멀리하게 하고, 또 종교단체의 생활을 극히 어렵고 불안케 하는 정부가 아직도 있다"는 불행한 사실입니다. (#15)

교회는 인간 존엄성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을 위하여 해석자가 되고져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든지 또 누구든지 각 개인의 종교 자유와 모든 민족들의 종교 자유는 반드시 존중할 것을 엄숙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가 이렇게 엄숙한 호소를 하게 된 것은, 비록 하느님을 설진 뜻은 없다손 치더라도 "사회자체의 공동신은 하느님과 그 성의(聖意)에 대한 인간의 성실성에서 유래하는 정의와 평화로써 도모될 수 있다는 깊은 확신 때문입니다."(종교 자유 선언 #6) 자유로운 종교활동은 개인들에게나 정부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자유를 존중할 의무는 시민 각자에게도, 합법적인 정부 당국에게도 두루 다 있는 것입니다.

□종교박해

그러면 왜 억압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자기 국가사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신적 가치를 보전하려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해서 억압과 차별 행위가 횡행하는 것입니까? 그 시민들은 요주의(要注意) 인물이나 범죄자로 취급될까 아니라 찬양과 칭송을 받아야 마땅할까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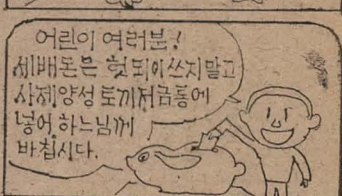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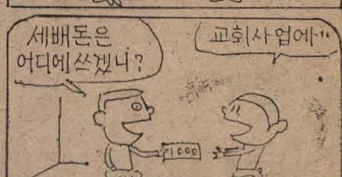
나의 신앙 교황 바오로 6세는 "부정적(否定的)인 산조주의(信條主義) 같은 것으로 인해서 무신론자를 찬양한다든지, 또는 개인적인 신앙적 소신(所信)은 어느 것이나 국교적 신앙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국가가 과연 신뢰와 협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의와 지혜와 현실주의는 해독스런 세속주의, 특히 종교적 사실을 순전히 개인적인 사정에 귀결시켜 버리려는 사상이 없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인간 각자에게는, 우리 생활 환경에서, 혼자서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혹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 점은 인권옹호를 주장함에 있어서 권리와 덧붙여져 따라오는 의무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은 자기 기본권을 책임성있고 도의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권리를 행사하기에 또 그 권리에 연결되는 의무를 이행하기에 가능한 그런 사회건설에 한 몫을 해야 하겠습니다.

(78. 12. 2 세계 인권 선언 30주년을 기하여 바르타하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

요심이 (287) 김병오



민족의 시인 김지하(프란치스코)

지하 문학의 밤

때 : 1월 29일(월) 밤 8시
곳 : 전주 가톨릭 센터
주최 :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원아모집 □

성모 유치원

자 격 : 만 5세이상
기 간 : 2월 1일-20일
연락처 : 중앙성당 성모유치원
전 화 : ⑤ 6 6 6 9

□ 원아모집 □

성체 유치원

자 격 : 만 5세 이상
기 간 : 2월 1일-2월 20일
연 락 처 : 중노송동 성체수녀원 내
전 화 : ⑤ 8808, ⑤ 3231

□ 직원 채용 공고 □

1. 자격 : 병역의무를 필한 30세미만의 남자로 고졸이상(상고출신자 우선)
 2. 제출서류
 - ① 이력서 1통.
 - ② 반명함판 사진 1매.
 - ③ 주민등록등본 1통.
 - ④ 최중학교 졸업증명서 1통
 - ⑤ 병역관계 증명서 1통
 - ⑥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3. 채용인원 : ○명
 4. 제출마감 : 1979년 2월 5일 오후 5시 30분
 5. 전형일자 : 1979년 2월 7일 오전 10시
 6. 제출처 : 전주 성가 신용협동조합(T. ⑦ 7188)
전주시 동서학동 110-1
-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직 원 모 집

1.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외모단정한 신자로서 상주 기거할 수 있는 여성
2. 연령 : 만 16세이상 20세미만
3. 학력 : 국졸 이상
4. 모집인원 : 2명
5. 접수마감 : 1979. 1. 31일 오후 5시까지
6. 면접 : 1979. 2. 1. 10시
7. 월 보수 : 초봉은 30,000원 이상이며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주 가톨릭센터 관장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오늘은 구라주일...나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나누시다! (특별헌금)
- 1. 사제서품...30일<화> 오전 11시, 중앙성당, 첫미사...31일<수> 출신 분당에서
전종복(용안), 박성팔(합월), 이상섭(전동), 박병준(장수), 김성진(서학동), 권이복(한들)
※ 많은 참여와 뜨거운 기도 바랍니다
- 2. 사도회 임원 연수회...2월 1일<목>~3일<토>, 가톨릭 센터(등록시간 1일 오후 1시반~2시)
대상자...① 사도회장단 1명, 봉사·재정분과 위원장 1명씩(계 3명)
② 제1차 사도회 임원 연수회에 불참 내지 숫자 부족하게 참가한 분당은 금번 연수회까지 해서
모두 6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 바람
회비...1인당 5천원(단, 교장·금산·남원·무주·순창·장계·장수분당은 4천 5백원씩)
- 3. 평협 산하 단체 임원 연수회...2월 3일<토> 오후 2시~4일<일>, 가톨릭센터...출정이 322호 참조
※ 각 단체는 보고자료 준비 바람...① 임원명단(나이·주소·직업), ② 78년도 사업내용, ③ 79년도 사업
계획, ④ 문제집, ⑤ 요망사항, ⑥ 기타
- 4. 교리교사 성서·교리 연수회(분당·공소)...2월 4일<일>~8일<목>, 가톨릭센터
※ 등록-2시까지 마지막 바람 ※ 준비물...어린이 미사책, 잊지 마세요
- 5. 군산시내 분당 청년연합회 순회미사...1월 31일<수> 7시 반, 들을동성당
- 6. 성가지도자 연수회는 3월초(예정 2월 10~11일)로 연기합니다
- 성민호 신부님, 대령 진급과 동시애 공군 군종감이 되셨습니다...축하합니다
- 나환자들을 위한 성금 35,800원...제1차 사도회 임원 연수회에서
- 김지하 문학의 밤...1월 29일<월> 오후 8시, 가톨릭 센터, 주관...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 민족의 시인 김지하(프란치스코) 문학의 밤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응 복
보좌 신부 정 응 현
사도 회장 이 북 석

- 1. 오늘(28)은 조상을 위해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 2. 사제서품식: 30일<화> 오전 11시
- 3. 초 축성: 2일<금> 어머니미사
- 4. 성심부녀회: 2일<금> 오전 11시
- 5. 혼인성사 받으실분 한달전에 분당신부와 면담하세요
- 6. 79년도 교무금 미신입하신 분은 신입해 주세요
- 7. 전례담당
28일: 복사-이강호, 엄관섭, 해설-장남수
- 지난주 봉헌금: 190, 163원

- 13반-윤안나, 석구리 공소회장-김종환,
마음리 공소회장-오규, 광곡리 공소회장-이병근
- 2. 어머니회 임원 개편
회장-김명숙, 부회장-원일순, 총무-윤안나
- 3. 새 신부님 첫미사(1월 31일 11시) 많은 참석 바람
- 4. 성령세미나 안내
1월 31일<수> 밤 7시30분부터 매주 수요일,
교재대: 1,000원
- 5. 사도회 확대회의: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사도회 회장님백)
- 지난주 봉헌금: 51, 005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권 동
사도 회장 김 성 록

- 1.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2. 총회에서 결정된 사도회 간부
회장-김성록, 부회장-박춘근, 선교부장-임채규·
차장-김광준·위원-박태복, 전례부장-김형호·차
장-박장춘·위원-양광식, 봉사부장-박춘원·차장
-차동주·위원-김재철, 재정부장-장성복·차장-
임실·위원-김종표, 감사-이홍재·이대환
- 3. 반사회 일제: 2월 1일-우아동, 2일-인후동(베드로
가장반) 해당된 반은 한가정도 빠짐없이 참석바람
- 4. 구정 합동 위령미사 봉헌: 아직 미사예물 못내신 가
정은 오늘 저녁미사까지 사무실에 내주세요
- 5.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87, 949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 1. 합동 위령미사: 오늘 공식미사
- 2. 구라주일: 나환자 성금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 3.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2월 3일<토>
- 4. 사도회·요안회 월례회: 2월 4일
- 5. 누갈다 유치원 원모집: 원서교부-2월 1~20일,
자격-만 4세이상, 연락처 ③ 9 5 6 7 번
- 6. 어머니 성가연습: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7. 성당 신축성금 신입 못하신분은 사무실에 접수 바람
- 지난주 봉헌금: 165, 32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강 덕 행
사도 회장 유 제 상

- 1. 2월말 공동체 묵상회 신입 바람
- 2. 합동 위령미사: 오늘 저녁 7시30분
- 3. 사도회 월례회: 2월 4일
- 4. 성모회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 5. 학생회 정기총회: 2월 4일(2층 회합실)
- 지난주 봉헌금: 28, 780원 교무금: 121, 51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성
사도 회장 유 석 종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분당: 신부·수녀 일동-
- 1. 축! 신품: 이상섭 부제,
서품식-30일 오전(중앙),
첫미사-31일 오전 11시(전동)
- 2. 가정 합동 봉헌미사(구정)
- 3. 레지오 마리에 연합친목회: 오늘밤 8시 유치원
- 4. 신학생 후원 저금통 분배
- 5. 주일학교 교사모집: 교교졸업자 및 대학생
재학중 영세후 3년이상 열심신자
- 지난주 봉헌금: 188, 660원 교무금: 233, 10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 1. 2월말 공동체 묵상회 신입 바람
- 2. 합동 위령미사: 오늘 저녁 7시30분
- 3. 사도회 월례회: 2월 4일
- 4. 성모회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 5. 학생회 정기총회: 2월 4일(2층 회합실)
- 지난주 봉헌금: 28, 780원 교무금: 121, 51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려

- 1. 성령세미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7주간),
회비: 3,000원 오늘중으로 신입하세요
- 2. 사도회: 2월 4일 주일 공식미사 후
- 3. 예비자 교리: 직장-목요일 오후 7시미사 후,
일요일-저녁 7시미사 후,
일반인-목요일 오전 10시·일요일 공식미사 후
- 4. 어린이 중·고생 미사시간
주일학교: 주일 오후1시반, 중·고생: (토) 오후4시
- 5. 구정 조상을 위한 미사
오늘 저녁미사 바치는 예물은 모두 순교성지 개발
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 지난주 봉헌금: 52, 23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황 인 구

- 1. 1979년도 구역장 및 반장 임명
1반-김진례, 2반-강순옥, 3반-김옥노,
4반-김순덕, 5반-윤성순, 6반-김금수,
7반-한순임, 8반-이복순, 9반-조귀녀,
10반-김정수, 11반-이익순, 12반-박영애,